2019 제3회 서울시 7급 국어 D책형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제1)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1)**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460)

> 국어의 '있다'는 경우에 따라 ㉠동사적인 모습을 모여 주기도 하고 형용사적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는다.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④ 비도 오고 그냥 집에 있자.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460)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는다. (동사 / stay)
◆ 있다: (동사)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 동사는 현재시재 '**는**'이라는 조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기 ①에서 '**는**'의 사용이 올바르다. 따라서 ' ~ 집에 있**는**다.'에서 '있**는**다'는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로 알맞게 쓰였다. 참고로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 둘 다 가능하다. / < cf. 형용사 '**있다**' - 영보이 한자라는 교재가 **있다**. (**형용사**) >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형용사 / be rich)
◆ 있다: (형용사) 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동사 / stay)
◆ 있다: (동사)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④ 비도 오고 그냥 집에 있자. (동사 / stay)
◆ 있다: (동사)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정답: ②

문제2) 사이시옷 표기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2)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50, 266, 279, 388, 444, 516, 530, 559)

① 붕엇빵 - 공붓벌레 ② 마굿간 - 이삿말 ③ 공깃밥 - 백지장 ④ 도맷값 - 머릿털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50, 266, 279, 388, 444, 516, 530, 559)

① 붕엇빵 - 공붓벌레 → 붕**어**빵. 발음: [붕:어빵](긴소리)

1) 붕어빵: 붕어 모양의 틀에 묽은 밀가루 반죽과 팥소를 넣어 만든 풀빵. / 서로 얼굴이 매우 닮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으므로 '붕엇빵'이 아니라 '붕어빵'이 옳다.

☺영보이 암기tip) 붕어빵 사세요. 3개에 1,000원입니다. **어**라, 여름인데 붕**어**빵을 다 파네. 예전에는 10개에 1,000원이었는데. 그래도 추억을 생각하며 먹어보자. 냠냡.. 쩝쩝..

< **어**라 ~ 붕**어**빵을 파네.. >

2) 공붓벌레: 공부만 파고드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발음: [공부뻘레/공붇뻘레]

◆ 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순 우리말(벌레)과 한자어[공부(工夫)]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벌레의 'ㅔ')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공부**뻘**레]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영보이 암기tip) **붓**을 잡고 잠을 자면 공**붓**벌레가 된다냐?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합격도 하지! < **붓**을 잡고 - 공**붓**벌레 >

② 마굿간 - 이삿말 → 마**구**간, 이**사**말

1) 마구간(馬廐間): 말을 가두어 기르는 곳. 발음: [마:구깐](긴소리)

◆ 마구간은 사잇소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6개 단어만은 '곳간 ,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로 적는다.

☺영보이 암기tip) 숫자를 넣어서 외우면 기억이 오래간다. - 마**9**간

2) 인사말(人事말):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 [인사말]

◆ 인사말은 사잇소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음 또한 [인사말]이 되므로 표기와 발음이 같다.

☺영보이 암기tip) 숫자를 넣어서 외우면 기억이 오래간다. - 인**4**말

③ 공깃밥 - 백짓장 → 백**지**장

1) 공깃밥(空器밥): 공기에 담은 밥. 발음: [공기빱/공긷빱]

◆ 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순 우리말(밥)과 한자어[공기(空器)]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기의 'ㅣ')으로 끝난 경우 (1)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공기**빱**]로 나는 것

☺영보이 암기tip) **깃**털이 공**깃**밥에 빠졌네. 버리지 말고 이리 줘. 오리털 패딩 만들어 보자. < **깃**털 - 공**깃**밥 >

2) 백지장(白紙張): 하얀 종이의 낱장. 발음: [백찌짱]

◆ 백지장은 사잇소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6개 단어만은 '곳간 ,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로 적는다.

☺**영보이 암기tip)** 홍콩 스타 **장백지**는 영어로 **백지장**? 찬호박, 현지류.. 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잖아. < **장백지 - 백지장** >

④ 도맷값 - 머릿털 → 머**리**털. 발음: [도매깝/도맫깝]

1) 도맷값(都賣값): 물건을 낱개로 팔지 않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싸게 파는 가격.

◆ 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순 우리말(값)과 한자어[도맷(都賣)]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매의 'ㅐ')으로 끝난 경우 (1)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도매**깝**]로 나는 것

2) 머리털: 머리에 난 털.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으므로 '머릿털'이 아니라 '머리털'이 옳다.

☺**영보이 암기tip)** 머**리**털이 별로 없지만 **리**본을 달면 우리 막내를 딸이라 여기겠지?

< 머**리**털 - **리**본 >

정답: ②

문제3) <보기>의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3)**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아 있겠지요. (㉡)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	㉢	㉣
①	그런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②	그런데	그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③	그랬더니	그런데	그래	그러니까
④	그랬더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

정답 및 해설

◆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의 단편 소설. 옥희라는 주인집 어린 딸을 화자로 하여 홀어머니와 그 집에서 하숙을 하는 아저씨와의 애정 심리를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1935년 ≪조광(朝光)≫에 발표하였다.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아 있겠지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그래**)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	㉢	㉣	
③ 그랬더니	그런데	그래	그러니까 (O)	**정답**: ③

문제4)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4)**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566)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 삼천리 화려 강산의 /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 떼들이 / 자기들끼리 ㉠ 끼룩거리면서 /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
②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 드러나 있다.
④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566)

◆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983년에 황지우가 출간한 시집. 기호, 만화, 사진, 다양한 서체 따위를 사용하여 시 형태를 파괴함으로써 풍자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 시적 자아의 심경 변화: 현실을 이탈하고자 함 → 현실 상황 때문에 현실로 회귀함
2) 시의 성격: 정치사회를 풍자함
3) 1980년대 독재정치로 암울하고 참혹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냉소적으로 노래하였으나 현실 상황 때문에 무력함을 안타까워 함.
4) 새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 억압된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 (X)
◆ 이 시는 1980년대 군사독재정치로 인해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무력한 삶이 드러나 있다.

②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O)
◆ 1980년대 군사독재정치에 환멸을 느껴 이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 드러나 있다. (X)
◆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군사독재정권에 억압되어 있다. 또한 회한이 아니라 냉소적 태도가 적절하다.
◆ 회한(悔恨): 뉘우치고 한탄함.
④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X)
◆ 제시된 부분에서는 알 수 없으며 시 전체를 보면 다음 부분이 나온다.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 길이 보전하세로 /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 주저 앉는다' 밑줄 친 부분으로 보아 무력감을 보이며 현실 상황 때문에 현실로 회귀하게 되므로 굳건한 의지는 맞지 않다.

정답: ②

문제5)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5)**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475, 477, 482, 483, 484, 485)**

① 핥다[할따] ② 밟게[밥 : 께] ③ 얽거나[얼꺼나] ④ 맑고[막꼬]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475, 477, 482, 483, 484, 485)

① 핥다[할따] (O)
1) 표준발음법 제4장(받침의 발음)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ㄾ, ㄺ, ㄼ',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넓다[널따] 외곬[외골] 핥다[할따] 값[갑] 없다[업:따] >
2) 핥다: 혀가 물체의 겉면에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게 하다. 발음: 핥다[할**따**], 핥아[할타], 핥으니[할트니], 핥고[할꼬], 핥는[할른], 핥지[할찌]
② 밟게[밥 : 께] (O)
1) 표준발음법 제4장(받침의 발음) 제10항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밟다[밥:따] 밟소[밥:쏘] 밟지[밥:찌] 밟는[밥:는→밤:는] 밟게[밥:께] 밟고[밥:꼬] /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③ 얽거나[얼꺼나] (O)
1) 표준발음법 제4장(받침의 발음) 제11항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묽고[물꼬] 얽거나[얼꺼나]

④ 맑고[막꼬] (X) → [**말**꼬]
1) 표준발음법 제4장(받침의 발음) 제11항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아[말가], 맑으니[말그니], 맑고[말꼬], 맑지[막찌]

정답: ④

문제6) 밑줄 친 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6)**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4, 6, 7, 490, 493, 496, 501)**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③ 나는 영수가 애쓴 사실을 알고 있다.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헛소문이었다.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4, 6, 7, 490, 493, 496, 501)**

◆ 관형사 절을 안은문장: 한 문장이 관형사 역할을 하는 절 형식으로 더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 예를 들어 '민수가 지은 동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관형사 절 '민수가 지은'을 안은문장이다.
◆ 동격절: 내포문에서 수식을 받은 명사가 내포문의 한 성분이 되지 못하고, 수식 보문이 피수식 명사의 내용이 되는 구성. 예를 들어, "나는 뉴스를 통해서 그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실을 알았다." 에서 피수식 명사인 '사실'은 '그가 미국으로 망명한'이라는 내포문의 성분이 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 (관계 관형절)
◆ '영수가 만든'이 '음식'을 꾸미는 관계 관형절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관계 관형절)
◆ '영수가 한'이 '질문'을 꾸미는 관계 관형절
③ 나는 영수가 애쓴 사실을 알고 있다. (동격 관형절)
★ '영수가 애썼다'와 '사실'은 동격이다.
★ **~ 했다는 사실, 소식, ~ 라는 사실, 생각'등이 오면 동격이라는 것을 알자.**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헛소문이었다. (관계 관형절)
◆ '영수가 들은'이 '소문'을 꾸미는 관계 관형절

정답: ③

문제7) 밑줄 친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 '-겠-'의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7)**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

정답 및 해설

◆ -겠-(1):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 잠시 후면 대통령 내외분이 식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 -겠-(2):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나는 시인이 되겠다. / 이번 달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 (미래의 일이나 추측)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 (미래의 일이나 추측)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주체의 의지)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 (미래의 일이나 추측)

정답: ③

문제8)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8)**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39, 254, 363, 364, 365, 366, 369, 370, 371, 373, 376)**

① 옐로카드(yellow card), 스태프(staff), 케이크(cake)
② 가디건(cardigan), 뷔페(buffet), 캐러멜(caramel)
③ 냅킨(napkin), 점퍼(jumper), 초콜렛(chocolate)
④ 팡파레(fanfare), 크로켓(croquette), 마사지(massage)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39, 254, 363, 364, 365, 366, 369, 370, 371, 373, 376)

① 옐로카드(yellow card), 스태프(staff), 케이크(cake) (O)
1) 옐로카드(yellow card): 운동 경기에서, 고의로 반칙을 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선수에게 주심이 경고의 표시로 보이는 노란색 쪽지.
◆ 외래어 표기법 제3장(표기세칙) 제1절 제9항 3.: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얘',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ə]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yard[jɑ:d] 야드 yank[jæŋk] 얭크 yearn[jə:n] 연 yellow[jelou] 옐로 yawn[jɔ:n] 욘 you[ju:] 유 year[jiə] 이어 Indian[indjən] 인디언 battalion[bətæljən] 버탤리언 union[ju:njən] 유니언
☺**영보이 암기tip)** 축구공을 차야지 태클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 어쩌니? 레드카드를 주겠어!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옐**로**카드**로** 주시면 안 될까요?
< 옐**로**카드**로** 주시면 >

2) 스태프(staff): 연기자를 제외한 연극, 영화, 방송의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

◆ 외래어 표기법 제3장(표기세칙) 제1절 제3항 1.: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mask[mɑːsk] 마스크 jazz[dʒæz] 재즈 graph[græf] 그래프 olive[ɔliv] 올리브 thrill[θril] 스릴 bathe[beið] 베이드

☺**영보이 암기tip)** 봉주르, 마드모아젤 ~ . 저 사람 뭐야? 스태프가 다 프랑스인이야? < 스태**프** - **프**랑스인 >

3) 케이크(cake):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설탕 따위를 주원료로 하여 오븐 따위에 구운 서양 음식

◆ 외래어 표기법 제3장(표기세칙) 제1절 제1항 3: 제1항 1, 2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stamp[stæmp] 스탬프 cape[keip] 케이프 nest[nest] 네스트 part[pɑːt] 파트 desk[desk] 데스크 make[meik] 메이크 apple[æpl] 애플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chipmunk[tʃipmʌŋk] 치프멍크 sickness[siknis] 시크니스

☺**영보이 암기tip)** 너희들 케이**크** 먹어봤어? 나는 케이**크** 매일 먹는다. **크크크** 메롱~ < 케이**크** - **크크크** 메롱 >

② 가디건(cardigan), 뷔페(buffet), 캐러멜(caramel) (X) → **카**디건

1) **카**디건(cardigan): 털로 짠 스웨터의 하나. 앞자락이 트여 단추로 채우게 되어 있으며, 소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크림 전쟁 당시 이 옷을 즐겨 입은 영국의 카디건 백작(Earl of Cardigan)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영보이 암기tip)** 리어**카**에서 **카**디건을 팔고 있네. 골라 ~ 골라 ~ 세 벌에 만 원. 오빠라 불러주면 네 벌에 만 원 ~ . < 리어**카** – **카**디건 >

< cf. 리어카: 자전거 뒤에 달거나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둘 달린 작은 수레. '손수레'로 순화 >

2) 뷔페(buffet): 여러 가지 음식을 큰 식탁에 차려 놓고 손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덜어 먹도록 한 식당

☺**영보이 암기tip)** 그 가수는 **뷔**페에서 데**뷔** 공연을 했다. < **뷔**페 - 데**뷔** >

3) 캐러멜(caramel): 물엿, 설탕, 우유, 초콜릿 따위에 바닐라 따위의 향료를 넣고 고아서 굳힌 사탕의 하나. 작은 네모꼴로 잘라 한 개씩 포장한다.

☺**영보이 암기tip)** 산에 더덕 **캐러** 갔다가 당이 떨어져 **캐러**멜만 잔뜩 먹고 왔네. 에구, 당이 자주 떨어지네.. 흑흑..ㅜㅜ < 더덕 **캐러** 갔다가 - **캐러**멜만 잔뜩 먹고 >

③ 냅킨(napkin), 점퍼(jumper), 초콜렛(chocolate) (X)

1) 냅킨(napkin): 주로 양식을 먹을 때, 무릎 위에 펴 놓거나 손이나 입을 닦는 데 쓰는 천이나 종이.

◆ 외래어 표기법 제3장(표기세칙) 제1절 제1항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영보이 암기tip)** 밥 먹고 입 닦는데 **냅**킨을 몇 장이나 쓰는 거야? 한 장만 써라. **냅**둬요! 저...냅킨 공장장 아들이에요. < **냅**킨을 몇 장이나 쓰는 거야? - **냅**둬요! >

2) 점퍼(jumper): 품이 넉넉하고 활동성이 좋은 서양식 웃옷. = 잠바

☺**영보이 암기tip)** 역시 점 보러 갈 때에는 가죽점퍼가 제격이지. 사장님, 개가죽 점퍼 미디엄 사이즈로 하나 주세요. < **점** 보러 갈 때 - 가죽**점**퍼 >

3) 초콜렛(chocolate)

☺**영보이 암기tip)** 초콜릿이 맛이 조금 싱겁지 않아요? 초콜**릿** 만드는 일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건 스피**릿**(spirit/정신, 영혼)이 담겨있는 초콜릿이란 말이야. 꼭 다 먹고 지랄이야! 다음부터는 돈 내고 먹어! < 초콜**릿** - 스피**릿** >

④ 팡파레(fanfare), 크로켓(croquette), 마사지(massage) (X) → 팡파**르**

1) 팡파르(fanfare): 축하 의식이나 축제 때에 쓰는 트럼펫의 신호. 삼화음(三和音)만을 쓰고, 5도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다.

☺**영보이 암기tip)** **르**네상스 국립 박물관 앞에서 팡파**르** 소리 들어봤어? 응, 들어봤는데, 잠 잘 때 들으면 뚜껑 열릴 것 같더라. 너무 소리가 크니까.

< **르**네상스 팡파**르** >

cf. 뚜껑이 열리다: (속되게) 화가 나다.

2) 크로켓(croquette): (프랑스어) 서양 요리의 하나. 쪄서 으깬 감자와 다져서 기름에 볶은 고기를 섞어 둥글게 모양을 낸 뒤 빵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겨 만든다.

☺**영보이 암기tip)** 크로**켓**을 먹으며 프로야구 티**켓**을 샀더니 판매원이 먹고 싶은지 크로켓만 쳐다 보다 거스름돈을 더 줬네. 내일도 크로켓 먹으면서 티켓 사야지. ㅋㅋㅋ

< 크로**켓** - 티**켓** >

cf. 고로케(korokke): (일본어) 서양 요리의 하나. 쪄서 으깬 감자와 다져서 기름에 볶은 고기를 섞어 둥글게 모양을 낸 뒤 빵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겨 만든다.
◆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7-19호, 1997년 2월 15일)) '고로케' 대신 순화한 용어 '크로켓'만 쓰라고 되어 있다.

3) 마사지(massage): 피부를 문질러서 곱고 건강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미용법.

☺**영보이 암기tip)** 내일 소개팅이 있다. 피부에 **마**가 좋다고 **마**를 얇게 잘라 얼굴 **마**사지(massage)를 했다. 와우 ~ 패완얼!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 < **마** - **마**사지 >

정답: ①

문제9)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 9)**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561)**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 아아 누구던가 /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① ㉠ ② ㉡ ③ ㉢ ④ ㉣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561)

◆ 유치환의 '깃발': 청마 유치환이 지은 시. 허무한 현실의 상황을 이겨 내려는 생명의 강한 의지를 깃발이라는 사물을 통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1) 이상향에 대한 향수와 그 좌절을 형상화 함
2) 아우성, 손수건, 애수, 마음: 깃발을 의미함.
3) 해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을 의미함.

◆ ㉢푯대: 푯대는 깃발을 묶고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깃발은 이상향을 꿈꾸나 푯대는 현실적 한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10)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10)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78, 279, 430, 431, 434, 517)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③ 두리뭉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④ 살짝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78, 279, 430, 431, 434, 517)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O)
1) '말아라, 마, 마라, 말아' 모두 표준어이다.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X) → 여지껏
1) '여태, 입때, 여태껏, 이제껏, 입때껏'은 표준어이나 '여직이나 여직껏'은 비표준어이다.

③ 두리뭉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O)
1) '두루뭉술하다, 두루뭉술하다' 모두 표준어이다.

④ 살짝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 (O)
1) '주책이다, 주책없다, 주책스럽다' 모두 표준어이다.

정답: ②

문제11)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11)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정리)**

> 도련님. /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여요.

① ㉠ ② ㉡ ③ ㉢ ④ ㉣

정답 및 해설

◆ 서정주의 '춘향유문': 1955년에 발표한 서정주의 시집 '서정주 시선'에 수록되어 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도련님에 대한 춘향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1) 검은물, 구름, 소나기는 춘향의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생사(生死)를 초월한 사랑을 나타낸다.

> ◆ '나무'는 도련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진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 중에서 의미가 가장 다른 소재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문제12)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12)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85, 309)**

① 바짝 졷 찌개를 다시 끓였다.
②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노라네.
③ 앉은 자세가 곧바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④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85, 309)

① 바짝 졷 찌개를 다시 끓였다. (O)
1) 졸다: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 졸다[졸:다], 졸아[조라], 조니[조:니], 조오[조:오]
☺**영보이 암기tip)** 포토 **존**(photo zone)에서 바짝 **존** 찌개를 먹다가 혼나지 말자.
< 포토 **존**(photo zone) - 바짝 **존** 찌개 >
②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노라네. (O)
1) 노랗다[노:라타] / 노래[노:래] / 노라니[노:라니] / 노랗소[노:라쏘]
☺**영보이 암기tip)** 은행잎이 노**라니** 고**라니**가 좋아한다. < 노**라니** - 고**라니** >

③ 앉은 자세가 곧바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X) → 곧**발**라야
1) 곧바르다: (형용사)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곧고 바르다. 발음: [곧빠르다]
2) 활용: 곧발라[곧빨라], 곧바르니[곧빠르니]
☺**영보이 암기tip)** 벽에 페인트를 **발라**야 하는데 자세가 곧**발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 페인트를 **발라** - 자세가 곧**발라**야 >

④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 (O)
1) 저렇다[저러타], 저래[저래], 저러니[저러니], 저렇소[저러쏘]
☺**영보이 암기tip)**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 생김새는 저**러나** - 그**러나** > **정답: ③**

문제13) <보기 1>에 이어질 글을 <보기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13)**

< 보기 1 >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 보기 2 >
㈎ 다시 말해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을 보면, 실제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해보았더니,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수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이는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개인의 유전 정보와 진료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독감 이름, 독감 예방법 등)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및 해설

④ ㈑ - ㈏ - ㈎ - ㈐ (O)
◆ 연관 단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독감 이름, 독감 예방법 등)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해보았더니,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수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다시 말해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을 보면, 실제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이는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개인의 유전 정보와 진료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정답: ④

문제14)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14)**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14) 변화 과정(의미, 형태) 정리)

< 보기 >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맞도록 언어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정답 및 해설

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O)
1) 이모: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2)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의미하지만 현대에는 주로 식당 따위에서 중년의 여자 종업원을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식당에 가서 이모라 부르기도 하고 동료의 자녀가 나한테 이모라고 할 수 도 있으므로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
◆ 통닭은 우리말이고 치킨은 외래어이므로 의미의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의 자의성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 자의성: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특성.
1) 통닭: 털을 뜯고 내장만 뺀 채 토막을 내지 아니하고 통째로 익힌 닭고기.
2) 치킨: 닭에 밀가루 따위를 입히고 튀겨 만든 요리. 굽기도 한다.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1) 아점은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아점은 아침 겸 점심으로 먹는 밥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 '마마'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지만 이것은 의미의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언어의 소멸이라 말 할 수 있다.

정답: ①

문제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제3회 7급 문15)**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22, 378, 386, 579,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보기 > 훈민정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문자의 모양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음에서 조음 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① 목청, 'ㅇ'과 'ㅎ'　　② 윗잇몸, 'ㄴ'과 'ㄷ'
③ 센입천장, 'ㄱ'과 'ㅋ'　　④ 여린입천장, 'ㅅ'과 'ㅈ'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22, 378, 386, 579,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보기 > 훈민정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문자의 모양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음에서 조음 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 자음: 목, 입, 혀 따위의 발음 기관에 의해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따위의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국어의 경우에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부류는 양순음(ㅂ, ㅃ, ㅍ, ㅁ), 치조음(ㄷ, ㄸ, ㅌ, ㅅ, ㅆ, ㄴ, ㄹ), 경구개음(ㅈ, ㅉ, ㅊ), 연구개음(ㄱ, ㄲ, ㅋ, ㅇ), 성문음(ㅎ)이 있으며, 조음 방법에 따른 부류는 파열음(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파찰음(ㅈ, ㅉ, ㅊ), 마찰음(ㅅ, ㅆ, ㅎ), 유음(ㄹ), 비음(ㄴ, ㅁ, ㅇ)이 있다.

초성(初聲)의 제자 원리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제자 원리
아음(牙音)	ㄱ	강	ㅋ	ㆁ	어금닛소리
설음(舌音)	ㄴ	남	ㄷ, ㅌ	ㄹ	혓소리
순음(脣音)	ㅁ	미	ㅂ, ㅍ		입술소리
치음(齒音)	ㅅ	사	ㅈ, ㅊ	ㅿ	잇소리
후음(喉音)	ㅇ	읗	ㆆ, ㅎ		목청소리

① 목청, 'ㅇ'과 'ㅎ'
1) 목청소리 'ㅇ'은 기본자이고 'ㅎ'은 가획자이다. 그러나 'ㅇ'은 연구개음(여린입천장소리/ㄱ, ㄲ, ㅋ, ㅇ)이나 'ㅎ'은 성문음(성대를 막거나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목청소리, 후음)으로 조음의 위치가 다르다.

② 윗잇몸, 'ㄴ'과 'ㄷ' (O)
1) 혓소리 'ㄴ'은 기본자이고 'ㄷ'은 가획자이다. 'ㄴ'과 'ㄷ'은 둘 다 치조음(ㄷ, ㄸ, ㅌ, ㅅ, ㅆ, ㄴ, ㄹ)으로 조음의 위치가 동일하다.

③ 센입천장, 'ㄱ'과 'ㅋ'
1) 'ㄱ'은 기본자이고 'ㅋ' 가획자이다. 'ㄱ'과 'ㅋ' 센입천장소리가 아니라 연구개음(여린입천장소리/ㄱ, ㄲ, ㅋ, ㅇ)이다.
④ 여린입천장, 'ㅅ'과 'ㅈ'
1) 'ㅅ'은 기본자이고 'ㅈ'은 가획자이다. 'ㅅ'은 치조음(ㄷ, ㄸ, ㅌ, ㅅ, ㅆ, ㄴ, ㄹ)이나 'ㅈ'은 경구개음(센입천장소리/ ㅈ, ㅉ, ㅊ)으로 조음의 위치가 다르다.

정답: ②

문제16)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옳지 않은 것은? **(2019지방직 7급 문16)**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49, 150, 154, 159, 160, 161, 164, 168, 169, 172, 451, 453, 459, 465, 467, 468, 469, 470)**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명사] /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부사]
②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라. [의존 명사] /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조사]
③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부사] /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명사]
④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 /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함부로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동사]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49, 150, 154, 159, 160, 161, 164, 168, 169, 172, 451, 453, 459, 465, 467, 468, 469, 470)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명사/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1) 오늘이 '오늘의 날씨, 오늘이 첫 출근'처럼 조사가 붙으면 명사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부사/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에]
1) 오늘이 동사 '할'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②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라. [의존 명사]
1) 만큼(의존 명사): 용언 뒤에 '만큼'이 오면 '의존 명사'이고 앞말과 띄어 쓴다.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조사]
1) 만큼(조사): 체언 뒤에 '만큼'이 오면 '조사'이고 앞말과 붙여 쓴다.
③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부사/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보다 꽤.]
1) '비교적'이 절 '교통이 편리하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명사/다른 것과 견주어서 판단하는 것]
1) '비교적'이 조사가 붙으면 명사이다.

④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 (X) → [**동사**/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
1) '혀가 굳다'에서 '굳다'는 동사이다.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함부로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동사] (X) → [**형용사**/재물을 아끼고 지키는 성질이 있다.]
1) '사람됨이 굳다'에서 '굳다'는 형용사이다.

정답: ④

문제17)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지방직 7급 문17)**

①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②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③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④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①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O)
1)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레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로 보아 비판과 검증으로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이 줄어들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오래가지 못함을 추론할 수 있다.

②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X)
1) '학교와 교사 없이도 독학을 할 수 있는 ~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로 보아 교사의 권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이 더 옳다.
③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X)
1) 이어질 내용으로 전혀 추론할 수 없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④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 (X)
1)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레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로 보아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과 검증을 하며 보다 능동적인 대중이 탄생하였다고 하는 게 옳다.

정답: ①

문제18) 사자성어 중 뜻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하나는? **(2019지방직 7급 문18)**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51, 52, 58, 59, 181, 188, 189, 234, 244, 245, 260, 270, 271)**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③ 문경지교(刎頸之交)　　④ 단순호치(丹脣皓齒)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51, 52, 58, 59, 181, 188, 189, 234, 244, 245, 260, 270, 271)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芝(지초 지) 蘭(난초 란(난)) 之(갈 지) 交(사귈 교)
1)의미: 지초(芝草)와 난초(蘭草)의 교제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도 고귀한 사귐을 이르는 말.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金(쇠 금) 蘭(난초 란(난)) 之(갈 지) 契(맺을 계).
1)의미: 쇠와 같이 단단하고 난초(蘭草)의 향기(香氣)처럼 좋은 그러한 사귐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③ 문경지교(刎頸之交): 刎(목 벨 문) 頸(목 경) 之(갈 지) 交(사귈 교)
1)의미: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 지란지교, 금란지계, 문경지교는 서로 유의어이다.
*** 다른 유의어 < 관포지교, 고산유수, 교칠지교, 금석지계, 담수지교, 막역지우, 수어지교, 지기지우, 지음, 금란지교 >**
1) 관포지교(管鮑之交): 管(대롱 관/주관할 관) 鮑(절인 물고기 포) 之(갈 지) 交(사귈 교)
a)의미: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란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2) 高山流水(고산유수): 高(높을 고) 山(메 산) 流(흐를 유(류)) 水(물 수)
a)의미: 높은 산과 흐르는 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풍류의 곡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할 미묘한 거문고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기 마음속과 가치를 잘 알아주는 참다운 친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膠漆之交(교칠지교): 膠(아교 교) 漆(옻 칠) 之(갈 지) 交(사귈 교)
a)의미: 아주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교분을 이르는 말. 중국 당나라의 시인인 백거이가 친구 원미지(元微之)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한다.
4) 金石之契(금석지계): 金(쇠 금) 石(돌 석) 之(갈 지) 契(맺을 계)
a)의미: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사귐.
5) 淡水之交(담수지교): 淡(맑을 담) 水(물 수) 之(갈 지) 交(사귈 교)
a)의미: 물과 같은 담박한 사귐이라는 뜻으로, 교양이 있는 군자(君子)의 교제.
6) 莫逆之友(막역지우): 莫(없을 막) 逆(거스릴 역) 之(갈 지) 友(벗 우)
a)의미: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
7)水魚之交(수어지교): 水(물 수) 魚(물고기 어) 之(갈 지) 交(사귈 교)
a)의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知己之友(지기지우): 知(알 지) 己(몸 기) 之(갈 지) 友(벗 우)
a)의미: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9)知音(지음): 知(알지) 音(소리 음/그늘 음)
a)의미: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거문고의 명인 백아가 자기의 소리를 잘 이해해 준 벗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여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10)金蘭之交(금란지교): 金(쇠 금) 蘭(난초 란(난)) 之(갈 지) 交(사귈 교).
a)의미: 쇠와 같이 단단하고 난초(蘭草)의 향기(香氣)처럼 좋은 그러한 사귐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 반의어**

1)市道之交(시도지교): 市(저자 시) 道(길 도) 之(갈 지) 交(사귈 교)
a)의미: 시장과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뜻으로, 단지 이익만을 위한 교제를 이르는 말.

④ 단순호치(丹脣皓齒): 丹(붉을 단) 脣(입술 순) 皓(흴 호) 齒(이 치)
a)의미: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

*** 유의어 < 경국지색, 경성지미, 만고절색, 절세가인, 주순호치, 침어낙안, 화용월태 >**

1)傾國之色(경국지색): 傾(기울 경) 國(나라 국) 之(갈 지) 色(빛 색)
a)의미: 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이라는 뜻으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이르는 말.
2)傾城之美(경성지미): 傾(기울 경) 城(재 성) 之(갈 지) 美(아름다울 미)
a)의미: 성을 기울어뜨릴 만한 미인을 말함.
3)萬古絶色(만고절색): 萬(일만 만) 古(옛 고) 絶(끊을 절) 色(빛 색)
a)의미: 세상에 비길 데 없이 뛰어난 미인.
4)絶世佳人(절세가인): 絶(끊을 절) 世(인간 세) 佳(아름다울 가) 人(사람 인)
a)의미: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5)朱脣皓齒(주순호치): 朱(붉을 주) 脣(입술 순) 皓(흴 호) 齒(이 치)
a)의미: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
6)沈魚落雁(침어낙안): 沈(잠길 침) 魚(물고기 어) 落(떨어질 낙(락)) 雁(기러기 안).
a)의미: 미인을 보고 물 위에서 놀던 물고기가 부끄러워서 물속 깊이 숨고 하늘 높이 날던 기러기가 부끄러워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를 이르는 말.
7)花容月態(화용월태): 花(꽃 화) 容(얼굴 용) 月(달 월) 態(모습 태)
a)의미: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정답: ④

문제19) <보기>의 ㉠~㉣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2019지방직 7급 문19)**

① ㉠- 規律 ② ㉡ - 老衰 ③ ㉢- 推戴 ④ ㉣ - 先出

정답 및 해설

① ㉠- 規律(규율): 規(법 규) 律 (법칙 율(률))

◆ 規律(규율)은 '規(법 규) 律 (법칙 율)'을 쓰는데, '規(법 규)'에는 '見(볼 견)'이 들어가고 '律 (법칙 율)'에는 '彳(조금 걸을 척)'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척박한 땅을 **조금씩 걸으며**(彳: 조금 걸을 척) 누구나 눈여겨**볼**(見: 볼 견) 만한 **規律**(규율)이 필요하구나. 여봐라~ 이번 달까지 그러한 規律(규율)을 강구하라.

② ㉡ - 老衰(노쇠): 老(늙을 노(로)) 衰(쇠할 쇠, 상옷 최, 도롱이 사)

◆ '老衰(노쇠)'는 '老(늙을 노) 衰(쇠할 쇠)'를 쓰는데, '老(늙을 노)'에는 '土(흙 토)'가 얼핏 보이고 '衰(쇠할 쇠)'에는 '衣(옷 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老衰**(노쇠)해 보일지 몰라도 윗집 302호 할아버지는 **토요일**(土: 흙 토)마다 반짝이 **옷**(衣: 옷 의)을 입고 콜라텍에 가신다. 할아버지 그만 좀 쿵쿵거리세요. 춤 연습은 콜라텍 가서 하기면 안 될까요?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 ♪

③ ㉢- 推戴(추대): 推(밀 추, 밀 퇴) 戴(일 대)

1) 의미: 윗사람으로 떠받듦.

◆ '推戴(추대)'는 '推(밀 추) 戴(일 대)'를 쓰는데, '推(밀 추)'에는 '扌(손 수)'가 들어가고 '戴(일 대)'에는 '戈(창 과)'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임원들의 推戴(추대)로 **손**(扌: 손 수)에 **창**(戈: 창 과)을 든 이순신이 장군으로 **推戴**(추대)되었다.

④ ㉣ - 先出 (X) → **選**出

1) 選出(선출): 選(가릴 선) 出(날 출, 단락 척). 발음: [선:출](긴소리)

a) 의미: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

◆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을 의미하는 選出(선출)은 '選(가릴 선)'을 쓰는데, '辶(쉬엄쉬엄 갈 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쉬엄쉬엄 가더라도**(辶: 쉬엄쉬엄 갈 착) 꼭두쇠는 신중하게 **選出**(선출)해야 한다.

2) 先出(선출): 先(먼저 선) 出(날 출, 단락 척)

a) 의미: 과일, 푸성귀, 해산물 따위에서 그해의 맨 처음에 나는 것.

◆ '과일, 푸성귀, 해산물 따위에서 그해의 맨 처음에 나는 것'인 先出(선출)은 '儿(어진 사람 인)'이 들어간다.

정답: ④

문제20) <보기>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지방직 7급 문20)** **(2019영보이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6) 글의 서술 방식 정리)**

이러한 음악의 한배를 있게 한 실제적 기준은 호흡이었다.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쉼이 한 배의 틀이 된 것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방법을 선인들은 양식척(量息尺)이라고 불렀다. '숨을 헤아리는 자(尺)'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 방법은 우리 음악에서 한배와 이에 근거한 박절을 있게 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시계가 없었던 당시에 선인들은 건강

한 사람의 맥박의 6회 뜀을 한 호흡(一息)으로 계산하여 1박은 그 반인 3맥박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한 호흡을 2박으로 하여 박자와 한배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면 서양인들은 우리와 달리 음악적 시간을 심장의 고동에서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맥박을 기준으로 하여 템포를 정하였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1분에 70회 전후로 맥박이 뛴다고 한다. 이에 의해 그들은 맥박 1회를 1박의 기준으로 하였고, 1분간에 70박 정도 연주하는 속도를 그들 템포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래서 1분간 울리는 심장 박동에 해당하는 빠르기가 바로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인 안단테로 이들의 기준적 빠르기말이 되었다.

① 주장을 먼저 제시한 뒤 다양한 실례를 들어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②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검토한 뒤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③ 대상의 특성을 분석한 뒤 대조하여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주장을 먼저 제시한 뒤 다양한 실례를 들어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X)
◆ 주장이라 할 만한 문장이 없다.
②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검토한 뒤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X)
◆ 제3의 견해를 도출한 것은 없다.
③ 대상의 특성을 분석한 뒤 대조하여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O)
◆ 호흡의 특성을 분석한 뒤 우리 음악 호흡과 서양인들의 그것과 대조하여 호흡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X)
◆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제시하였고 통념을 반박한 것은 없으며 해결책을 모색한 것도 없다.

정답: ③

- 영보이 저서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판매 중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고사성어 편" < 판매 중 >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판매 중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20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20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